
「통계청 - 한국은행 공동 포럼」

환영사

2025. 3. 26.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 이 환영사는 조사국 정민수 팀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오늘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귀한 행사를 함께 주최해주신 이형일 통계청장님과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창우 KDI 부원장님, 안기돈 충남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이동해 포럼 준비에 애써 주신 통계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기관인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한국은행이 주요 어젠다로 삼아 온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호 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방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출연하셨는데, 최근 그 지역에서 유일한 의사가 되면서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의사로서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동시에, 점점 위축되는 지역경제가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 또한 이른바 '인서울'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높은 집값을 감당하며 사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책 지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대안으로, 2개에서 많아야 6개 정도의 소수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투자하여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점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은 뒤처지게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서울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점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지표가 바로 통계청의 GRDP 통계입니다. GDP(국내총생산) 통계 없이 국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GRDP(지역내총생산) 통계 없이 지역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GRDP를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오랜 기간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과 헌신 끝에 분기별 GRDP를 추계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에서 GPS가 필수적인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GRD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GDP를 추계하는 한국은행과 GRDP를 담당하는 통계청 간의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완전한 봄기운 속에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